

尹당선인 측 “신임 한은총재 지명, 靑에 합의·추천 없었다”

靑 “한은 총재 공백 최소화...尹 측 의견 수렴” 尹당선인 측 즉각 반발...“어떤 합의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뒤를 이을 신임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62)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담당,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전문가다.

박 수석은 이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에 대한 이

문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경제, 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측과 인사와 관련해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 직위

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있는 만큼 어떤 정국이나 관계없다”며 “3월31일(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절차를 생각할 때 사전에 후임 총재 인선 작업이 필요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문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선까지 강행하면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간의 신규(新舊)권력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청와대의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



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째 열리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 대해 “인제 조건없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잘 알 것”이라며 “그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회의 끝에 회동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조건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입주때 참석할 정치인은 누구?

친박 핵심 최경환 전 부총리·추경호 의원 ‘건강사유’ 불참



대구시 달성 사저에 24일 낮 12시에 도착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영 현장에는 정치인 중 일부만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 후보 공천 경쟁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달성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 맞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 측은 “24일 오후 2시30분에 달성에서 쿠팡 대구점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다. 오전부터 일정을 조정해 사저 입주하는 박 전 대통령께 환영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당일 대구에 내려와 달성 사저를 찾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과석문 전 국회 의원 등 친박 인사들도 이날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박 핵심 인사로 지난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달성행’을 하지 않는다.

가석방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죠”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최측근인 오세혁 경북도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오랜 수감생활에 따른 건강체로 인해 어렵지만 달성은 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원 4선 지역구인 달성군에서 재선을 한 추경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사저 현장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달성환영단의 일원이다. 달성환영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지난 1998년 달성 보궐선거 때부터 오랜 인연을 맺은 ‘달성맨’들로 구성돼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최이슬기자

이준석 “현역·무소속 페널티 반대 김재원, 당대표에 뒤집어 씌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경력자 15% 페널티 등으로 결정된 지방선거 공천심사 방식에 대해 “저는 누차 감산점 등 어떤 형태든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역 출마에 대한 페널티, 무소속 출마 경력 페널티 등에 다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돼 25% 감산을 안게 된 홍준표 의원은 “지도부의 난맥상을 걱정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방송에서 제가(이 대표) 35%를 하자고 했는데 본인(김 최고위원)이 25%로 줄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회의록도 다 남아있고 회의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 최고위원이 최근 본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를 사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가 35점(총합 35% 페널티)을 들고온 걸 오히려 김 최고위원이 25점으로 낮춘 건가’ 질문에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과정에서는 이 대표께서 내용을 모르고 상정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에 “김 최고위원은 김어준씨 방송 좀 그만 나가야 한다”며 “거기서 김어준씨와 짜짜공해서 당의 중차대한 공천에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나”라며 “이젠 야당도 아닌 여당 지도부다.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만 생각하는 지도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소통 웹사이트 ‘청년의꿈’을 통해서도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강경하게 나가 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특정 최고위원의 농간”이라고 답했고, “무소속 출마 감점은 너무 치졸하다”는 글에는 “그런 음험한 술책으로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지요”라고 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